

옛 낮

김소월

생각의 끝에는 졸음이 오고
그리움의 끝에는 잊음이 오나니,
그대여, 말을 말아라, 이후부터,
우리는 옛 낮 없는 설움을 모르리.

끈대

20160042 구인용

괴롭다. 문학의 뜨락 동방의 수백 권의 책, 수십 권의 시집 중 어찌 김소월의 시집 한 편이 없단 말인가. 어느 때처럼 동방에서 시집을 찾아 읽으려던 계획이 산산이 무너지고, 급한대로 미리 써 두었던 백석 보고서를 대신 내고야 말았다. 모처럼 에세이 과제 없는 한 주를 축하하며 술이나 먹을까 했는데 다시 자판 앞에 앉으니 기분이 영 좋지 못하다. 이번 수업을 들으며 처음으로 제 돈 주고 산 시집이 ‘하필’ 김소월인 것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대략 눈치 챌겠지만 나는 김소월을 좋아하지 않는다. 워낙 유명한 “진달래꽃” 때문에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시인으로, 전에 몇 차례 시집을 꺼내 읽어본 적이 있었으나 읽을 때마다 별다른 감흥이 없었다. 더군다나 문학의 뜨락 동인들에게도 외면 받은 이 시인 때문에 난처함을 겪으며 오랜만의 술자리도 나가지 못하게 되었으니, 비록 김소월 시인의 잘못은 아니지만 나는 그가 웬지 미워지는 것이었다.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처럼 읽힐까봐 항변하자면, 나는 그저 술 많이 먹으라는 안도현 시인의 말을 잘 따르고자 할 뿐이다.) 그러니 본 에세이의 부제를 붙이자면 아마 ‘내가 김소월을 不好하는 몇 가지 이유’가 되겠다.

앞서 적었지만 김소월의 시는 별로 감흥이 없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재미가 없다. 시집을 꺼낼 때 나는 장정일이나 황지우처럼 난해할 정도로 독창적인 글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저 기억에 남을 표현 하나만 건질 수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김소월의 글은 기형도의 문장처럼 깊이 박히지도 않았다. (기형도 에세이에도 적었지만 문학의 뜨락 선배가 김소월과 기형도의 시를 소개시켜 주셨을 때, 김소월의 글은 기형도에게 밀려 기억에서도 비참하게 사라져버린 바 있다.) 가끔 영탄법이 등장하지만 박노해의 글처럼 글자를 찢고 나와 독자를 고무시키는 힘은 부족했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표현이 다소 평범하고 내용이 없다. ‘*하소연하며 한숨을 지으며 / 세상을 괴로워하는 사람이여!*’ (“맘에 있는 말이라고 다 할까 보나”)에서의 ‘사람’은 굉장히 추상적이다. 박노해의 글에 등장하는 손목이 낱아간 정형이나(“손 무덤”), ‘*빨간 휴일날 / 누렇게 누렇게 찌들은 소처럼*’ 휴일 특근을 가는 민주 아빠(“주말 특근”)와 비교하면, 김소월의 글 속의 인물에는 도저히 이입할 수 없다. 더욱이 영탄법은 다소 부담스럽다. ‘*오오 아내여, 나의 사랑!*’ (“부부”) 같은 문장을 소리내어 읽기에는 얼굴이 화끈거리지 않는가.

영탄법이 쓰이지 않은 글이라도 싱겁기는 마찬가지다. 차라리 그 편이 담백해서 낫다고 하겠다. ‘*물구슬의 붉 새벽 아득한 길 / 하늘이며 들 사이에 넓은 숲 / 젖은 향기 불긋한 잎 위의 길 / 실그물의 바람 비쳐 젖은 숲*’ (“꿈 길”). 예쁜 시화라도 함께 그려준다면 어느 고속도로 휴게소의 소변기 앞에서 이질감 없이 스쳐갈 문장이겠지만, 길과 숲, 꿈을 수식하는 예쁘장한 행들이 나에게는 어떤 감동을 주지는 않았다.

그런 이유로 김소월의 대표적인 시 “초혼” 또한 나에게는 그리 좋은 느낌으로 읽히지는 않는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 불려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절절한 외침이지만 결국 같은 말을 여러 차례 표현만 바꿔 반복하는 느낌이었다. 그 표현이 진부한가를 곰곰이 생각하며 되뇌이면 사실 그리 흔한 표현은 아닌데, 한 번 읽었을 때는 그것이 뇌리에 박히는 표현은 아니고, 느낌표가 부담스러워 다시 읽기는 싫어지는, 그런 애매한 시였다.

김소월의 글에 감동받지 못하는 또다른 이유는 그가 사용하는 특유의 종결어미 때문이다. ‘-버니다.’ ‘-요.’ 같은 존댓말은 조금 부담스럽지만 그나마 괜찮다. 읽을 때 크게 의식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어라’, ‘-노라’ 같은 어미는 매우 거슬렸다. 당시대의 흔한 언어 양상이었을 수도 있고, 또 현재와는 쓰임이 달랐을 지도 모르나 지금 읽기에는 다소 명령이나 선언처럼 읽히는 표현이었다. 뭔가 건방진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 예컨대 ‘*눈물은 / 흘러내려라. / 스르르 내려 감는 눈에.*’ (“우리 집”)같은 표현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읽혔다. 소위 ‘중2병’ 같다. 오글거리는 걸 작가 본인만 모르는 거지. ‘-라’가 말을 전달하는 ‘~~ 하더라’의 쓰임으로 쓰이는 것 같기도 했으나, 여전히 웬지 기분 나쁜 것은 변함이 없다. 왜 독백을 저렇게 다 안다는 듯이,

확신에 가득차서 한담? 마치 ‘내가 사랑도 이별도 겪어보니 이렇더라’ 라고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는, 말하자면 꼰대를 보는 것 같았다.

와. 꼰대 같다는 표현, 곱씹을수록 적절하다. 뭐라 형용할 수는 없지만, 글에서 느껴지는 김소월은 나에게 굉장히 꼰대같이 다가온다. 혼자만이 절절하게 아름다운 사랑과 이별을 해왔다는 듯, 그리움과 사랑에 대한 담론을 펼치며 스스로의 표현에 감탄하고 알맹이 없는 수사(修辭)를 반복하는 게 딱 꼰대다. 듣고 있자면 피곤한 유형이다.

그렇게 김소월에 대한 인상이 굳혀갈 때 즈음 읽은 시가 전문인용한 시 “옛 낮”이었다. 졸음이 찾아오면 생각이 끝나고, 누군가를 잊게 되면 그리움도 끝이 난다는 점을 이용해 꽤 ‘졸음’과 ‘잊음’에 나름의 좋은 정의를 부여했다고 생각되는 글이다. 김소월이 끊임없이 다루는 소재인 그리움과, 그 대상에 대한 생각 - 의 끝을 논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별성을 갖는 글이기도 하다. 생각과 그리움이 끝나면 침묵하겠다고, 옛 낮 없는 설움을 알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한 편으로는 모더니즘을 받아들이는 낭만주의자의 마지막 모습 같아 안타깝기도 하다.

그런데 처음 “옛 낮”을 읽었을 때는 위의 감상이 전혀 들지 않았다. 그저 김소월의 글에 대한 반감과 피곤함으로, 괜히 이렇게 따지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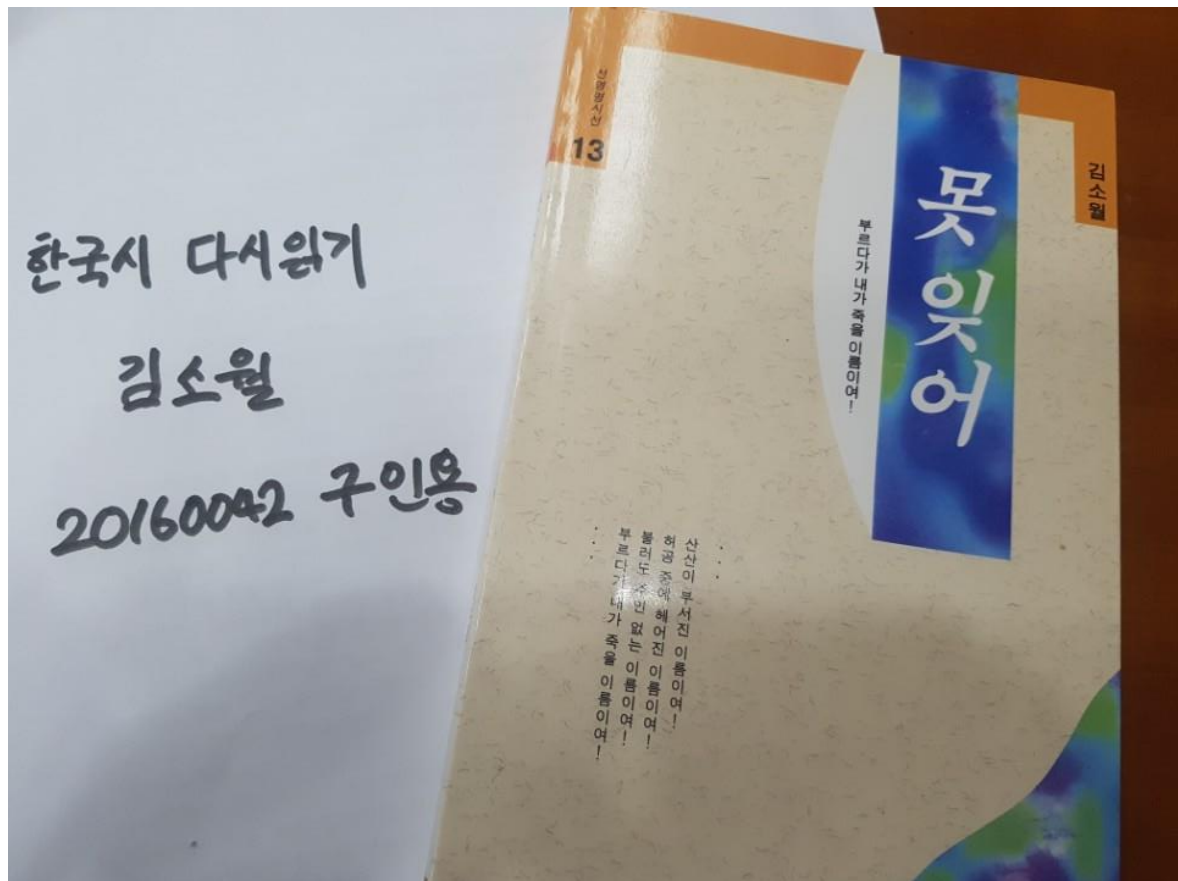
김소월 씨, 그걸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왜 계속 떠들어요? 당신 글 읽다보면 졸려요. 당신 글이 쉽게 잊힌다구요. 그러니 말 좀 마세요 제발. 완전 꼰대 같으니까.

아아. 나름 한국 현대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훌륭한 문인에게 건방진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가만 보니 비슷한 생각을 전에도 한 적이 있었다. 바로 서정주 에세이를 작성할 때였는데, 그 때도 서정주에게 날 선 비판을 퍼부었다. 다시 읽으니 서정주와 김소월의 느낌이 매우 비슷하다. 예쁘고, 한국적이고, 부끄러움의 감정은 찾아볼 수 없는 글. 둘 다 일제강점기 시인이고, 그래서인지 문체도 어느 정도 유사한 부분이 보인다. 물론 김소월은 민족 부여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혹자는 김소월의 글에 등장하는 ‘그리움’이 조국에 대한 것이라고도 해석하지만, 나는 오히려 그냥 사랑시로 읽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나은 것 같다. 서정주와 한용운의 중간 정도의 스펙트럼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담이지만, 서정주와 비교를 하는 김에 서정주 에세이를 다시 읽어보았다. 제목을 〈음독〉이라고 두었는데, 서정주에게서도 별다른 글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다가 시를 소리내어 읽으며 감동의 순간이 찾아왔었다는 것을 상기해주었다. 안타깝게도 김소월의 글은 소리내어 읽어도 여전히 부담스럽고 낯간지럽다. (물론 운율이나 아기자기한 소리가 확실히 시의 느낌을 살려주는 것은 느낄 수 있었다.) 그냥 김소월의 시는 마야가 붙인 가락과 함께 노래의 형태로 부르고 듣는 것이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든다.

음독. 아이러니하게도 서정주는 飲毒 자살을 했다고 한다. 서정주 에세이에서 마지막 문장을 ‘우리가 그의 시를 음독(音讀)하는 동안, 시인은 생에 거쳐 음독(飲毒)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잠시 생각해본다.’ 라고 적었는데 몇 주 후에 음독 자살을 한 동시대의 시인을 마주하게 되니 김소월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괜스레 마음이 숙연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들어, 언젠가 김소월을 다시 읽어보기로 다짐한다. 그 때는 그를 조금 더 좋아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새벽인데 정신이 맑다. 혈관 속에 알코올이 없기 때문일까, 내가 인지하지 못한 김소월 시의 힘일까.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온 것처럼 피곤하지가 않다. 이렇게 정갈한 밤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에세이를 쓰기 전보다는 기분이 조금 좋아졌다. 잠시 입맛을 다시고 술에 대한 미련은 지우기로 한다. 꼰대 김소월의 술에 대한 지론을 떠올리면서, ‘술은 돈이외다, 술도 물도 돈이외다. (“술”) 쳇. 맞는 말이라 더 밍네. 아무튼 나랑 안 맞는 양반이다.



“못 잊어”, 김소월 (선영사)

1989년 11월 10일 초판 인쇄